

보건부, 대마 마약류 위험등급 하향 권고



▲ 뉴욕시의 대마초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보건 당국이 현재 중독 위험이 가장 큰 마약류로 분류돼있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는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전날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중독 위험이 가장 크고 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는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마약단속국은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한다.

HHS는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HHS는 대마에 대한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 마약단속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마약단속국이 검토를 시작해 등급 하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40개 주에서 대마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자동차 보험료 급등에 무보험 운전자 증가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올라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6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올해 7월 자동차 보험료가 작년 7월보다 평균 16%, 2013년보다 70%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수리비, 노동자 임금,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BLS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비용이 작년 7월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WP는 보험사들이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다면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히 보험료가 크게



▲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무보험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형 운전자와 저소득층에 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운전자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별 혜택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예 보험 없이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올해 뉴욕의 한 보험사가 18~34세 2천7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는 지난해에 보험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실적이 나빴던 것도 원인이다.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2022년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134억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실 6억7천800만 달러를 낸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지난 5월 15개 지역의 보험료를 9.3% 인상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생계

2년 안에 '시 자율 무기' 수천 대 실전 배치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드론(무인항공기)과 무인 선박 수천 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율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캐서린 히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미 국방산업협회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레플리케이터(replicator·복제기)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수천 대 규모 자율 시스템을 18~24개월 내에 다양한 지역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히스 부장관은 "레플리케이터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인 더 많은 선박과 미사일, 병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나가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자율 시스템을



▲ 미 공군 정보감시정찰(SR) 소속 무인기 MQ-9. 사진=연합뉴스

활용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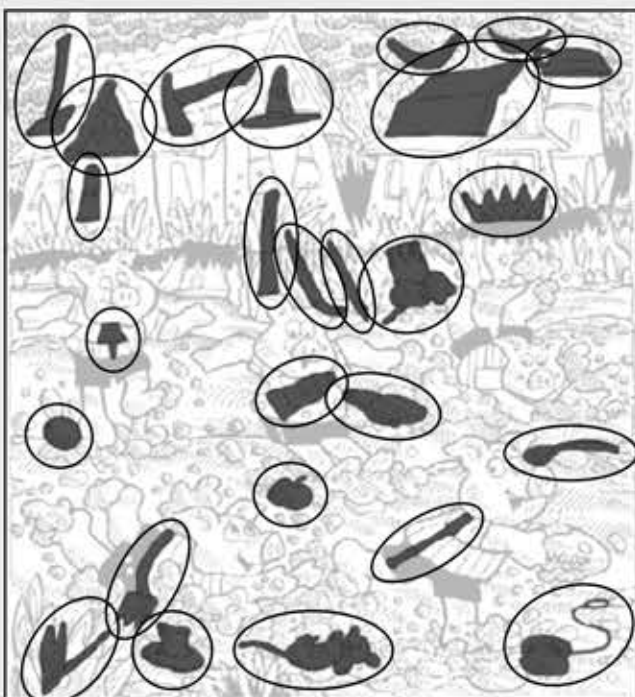
대만 침공 같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2년 내에 비대칭 무기인 공격용 드론과 무인 선박을 이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히스 부장관은 "우리는 경쟁자들처럼 우리 병력을 총알받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중

국 지도부가 매일 아침 침공을 고려할 때 '오늘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전 배치될 자율 무기 종류는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인간 조종사와 함께 전투기 편대를 이루는 무인 전투기 '발키리 프로젝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 짜	2 개		3 동	치	4 미		
	5 요	6 총	지		7 지	8 구	
		언				공	
9 약		10 역	류		11 성	탄	12 절
13 몽	14 동	이		15 쫓	대		구
	우				모		
	16 리	17 필		18 아	사	19 달	
		20 사	대	부		21 인	슬